



콩푸 아니고 똥푸

차영아 글 | 한지선 그림
문학동네 | 초등 1학년 이상

제17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
여성가족부 추천 나다움어린이책 '다양성' 부문
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동무씨동무 선정
천안시 한 책

활동1 꼭꼭 간직하고 싶은 말 찾기

『콩푸 아니고 똥푸』에는 소리 내 읽을수록 웃음이 나오는 말,
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는 말, 마음이 뭉클해지는 멋진 말이 잔뜩 나와요.
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아서 적고 그 이유도 말해 보아요.

「콩푸 아니고 똥푸」에서 간직하고 싶은 말



「오, 미지의 택배」에서 간직하고 싶은 말



「라면 한 줄」에서 간직하고 싶은 말





내가 택배를 받는다면

언제부터가 어른인 걸까요? 아홉 살 미지는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.
자기 앞으로 온 택배 상자를 받게 된다면! 바로 그때부터가 어른인 거라고요.

미지의 첫 택배는 봉자가 보낸 '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운동화'였어요.

나의 첫 택배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나요?

마음껏 상상해 보고 그 택배의 제품 설명서를 써 보세요.

보낸 사람:

받는 사람:

제품 설명서

제품명:

기능:

사용 방법:

주의 사항:



내 마음속 풍경 그리기

눈을 감고 탄이와 미지, 라면 한 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.

어떤 장면이 생각나요? 책을 읽고 난 내 마음속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.

이야기 속 한 장면이어도 좋고, 이야기엔 나오지 않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도 좋습니다.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, intended for the user to draw their mental landscape.